

# 고흥서 '국제스페이스캠프' 열린다

오는 8월 고흥에서 2009 국제스페이스캠프가 열린다.

전남도는 17일, 세계 17개국 3만여 명이 참가하는 '2009 세계 우주소년 단대회'를 고흥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올해로 예정된 고흥 나로우주센터 준공과 인공 위성 발사를 계기로 고흥을 국내 우주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우주 관련 각종 국내외 행사 유치에 앞장 서왔다.

오는 8월 10일부터 5일간 '2009 국제스페이스 캠프'란 명칭으로 개최

8월 10일부터 5일간 바다우주축제 등 행사 다채

17개국 3만여명 참가... 우주산업 메카 자리매김

되는 이 행사는 매년 각국을 순회하면서 개최되는 것으로, 지난 2007년에는 호주 시드니, 2008년에는 일본 기타큐슈에서 개최됐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

우주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청소년들의 만남과 소통의 한마당으로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우주놀이마을, 우주창의성대회, 바다우주축제 등의 체험프로그램과 함께 전남 인근 관광투어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된다.

입체영 전남도 과학기술과장은 "오는 3월 한국 최초의 우주인인 이

소연박사 초청강연을 시작으로, 전국 항공우주과학경진대회, 전남과학축전 등 다양한 행사를 유치할 계획"이라며 "올해가 우주산업이 전남의 미래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우주소년단은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세계 13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 한국 우주소년단은 중앙본부와 13개 지방 본부를 두고 있으며 5만5천여 명의 단원이 활동중이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1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민들이 카리브해의 프랑스령 마르티니크와 과들루프 섬의 노동자 파업에 동조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해외 영토인 이들 섬의 노동계는 임금 인상과 식료품값 인하 등을 요구하며 한달째 파업을 벌이고 있고, 프랑스 노동단체들도 내달 19일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 프랑스 '실업공포' 확산

파리=정상필 특파원

작년 정규직 노동자 16만명 일자리 잃어

비정규직도 21.2%인 15만명 이상 실직

글로벌 경제 위기로 지난해 1년간 프랑스에서 정규직 노동자 16만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한 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프랑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민영 부문 피고용자 수가 0.6% 낮아졌다. 이는 10~12월까지 3개월 동안에만 8만8천700명이 직장을 떠난 것으로 2008년 전체 일자리 감소분 16만3천100명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다.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은 -1.2%로 30년 만에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통계청이 발표한 바 있다.

반면, 고용청(ANPE)과 상공업 고용협회(Assedic)가 운영하는 구직 사이트(Pole emploi)에 등록된 구직자 수는 21만8천명으로 심각한 취업난을 반영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공업 분야에서는 일자리 감소율이 2.2%에 달했다.

비정규직도 예외는 아니었다. 임시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21.2%인 15만명 이상이 지난해 일자리를 잃었다. 이 중 13%는 4/4분기에 일어난 실직이었다. 특히 지난해 말 프랑스가 글로벌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2009년에도 사정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전국상공업고용연합은 올해 25만명이 실직하고, 28만2천명의 실업자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에도 12만2천명의 실업자와 11만3천명의 실직자가 양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전망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지난해와 비슷한 -1.0%, -0.5%로 가정했을 때다. /@kwangju.co.kr

## “北, 25일째 미사일 발사 가능성”

프랑스 일간지 보도

북한이 남한과의 정치적,군사적 합의를 모두 무효화한 데 이어 오는 25일째 장거리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프랑스 일간 리베라시옹이 16일 전했다.

주말관 리베라시옹은 “25일은 북한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 되는 날”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최근 미사일을 두 층으로 분리해 탑재한 40m 길이의 특수 열차가 환경복도 무수단리 기지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북한은 앞서 무수단리 기지에서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을 시

험발사한 바 있다.

미국은 이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도발이라면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가능한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미사일이 미국을 위협할 경우에는 이를 요격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하고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첫 해외순방지로 아시아를 택해 이 지역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연합뉴스

## “내 목표는 北 비핵화”

힐러리 美 국무 “부시정부 제네바 합의 파기” 비판도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6일 북한 핵문제와 관련, “나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라며 북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그러나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가 고농축우라늄(HEU) 핵프로그램에 대한 의혹을 근거로 제네바합의를 파기함으로써 결과적으

로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갖게 됐다고 비판,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클린턴 장관은 이날 아시아 순방길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나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라면서 “이는 북한이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설명하고, 재처리한 플루

토늄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일각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정책이 핵폐기보다 북한이 확보한 핵무기나 핵물질, 핵기술이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는 데 초점을 둔 ‘안전한 북핵관리’에 있다는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클린턴 장관은 또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핵프로그램에 대해 “우리는 정확하게 그것(HEU)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 지 등을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고, 폐기됐음을 확실히 하기를 바란다”며 향후 HEU문제도 규명할 것임을 밝혔다. /연합뉴스

수석합격 100% 9문제풀이반

한빛 고시학원

www.hanbit.com

스피치 리더십 지도자

코엑스 내 웅크리

02-225-1221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여행 89,000원

064-744-1189